

자력자강의 사회주의강국건설대전에서 쟁취한 자랑스러운 대승리, 전인민적인 대경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려명거리 준공식 성대히 진행

2 면 에 서 계 속

려명거리는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건축 예술의 척도이며 사회주의문명이 응축된 리상거리라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금수산태양궁전방향에는 정중성의 원칙에서, 봉황네거리의 영생탑방향에는 상징성의 원칙에서 아담한 다층건축과 웅장 화려한 초고층건축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있는 렬명거리는 건축의 실용성과 조형화, 예술화측면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주체건축, 현대건축의 본보기, 표준이다.

모든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에 선 전기선, 선 미학성의 원칙이 철저히 구현되고 태양빛과 지열을 비롯한 자연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리용할수 있는 전기절약기술들과 지붕 및 벽면복합기술 등 최첨단 건축기술들이 도입되어 에너지를 절약하며, 녹색형거리로서의 면모를 훌륭히 갖추고 있다.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상징인 렬명거리는 당의 부름이라면 산도 떠움고 바다도 메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자력자강의 무궁무진한 힘에 떠받들려 솟아난 만리마시대의 자랑스런 창조물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같은

호소를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건설자들은 방대한 복부피해복구전투까지 하면서 규모와 공사량에 있어서 미래과학자거리에 비해 두배가 훨씬 넘는 렬명거리들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일떠세우는 기적중의 기적을 창조하였다.

인민군인들과 건설자들은 렬명거리전역을 적들과의 치열한 대결전,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으로 여기고 단숨에의 정신으로 70층살림집준공사를 단 74일만에, 외벽타일붙이기는 13일만에 끝낸것을 비롯하여 만리마시대의 건설신화들을 렬이 자랑하였다.

싸우는 고지에 탄약과 식량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렬명거리건설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 자금을 최우선 생산보장한 전국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온 나라 인민의 거세찬 지원열풍과 야간지원돌격대원들의 헌신적인 투쟁모습은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당의 구상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는 일심단결된 우리 식 사회주의의 불가항력적위력을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한 감동깊은 화폭이었다.

참으로 렬명거리건설은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의 위력과 사회주의조선의 무한대의 발전잠재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고 원부들의 정수리에 몇백발의 핵폭탄을 더뜨린것보다 더 무서운 철퇴를 안긴

력사에 길이 빛날 승리며 특기할 대사변이다.

연설자는 전체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흥모와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비범한 사상과 영도, 강철의 신념과 탄력으로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새시대를 이 땅위에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인사를 삼가 드리었다.

그는 오늘 우리앞에는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쳐 응대한 설제도따라 기세충천, 용기백배하여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앞당겨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고 혁명의 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는 것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지리남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독립이며 투쟁기풍입니다.》

연설자는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한몸에 안으시고 역사의 온갖 도전을 과감히 깃부시며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를 백옥같은 충정과 결사의 실천으로

받아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은 강원도정신창조자들과처럼 수행의 유순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불길드늘이 자력자강의 움직음직한 창조물들을 더 많이, 더 훌륭히 일떠세우며 만리마선구자대회를 향하여 총돌격, 총매진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렬명거리전투장에 내려치던 만리마속도창조의 열풍을 더욱 고조시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제2, 제3의 《려명거리신화》들을 다발적으로, 렬발적으로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려명거리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시설의 편리운영을 맡은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애국주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모든 건축물들과 시설물들을 책임적으로 정상관리, 정상운영함으로써 당의 은정이 인민들에게 더 뜨겁게 안겨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렬명거리완공의 기쁨을 우리 인민들과 함께 나누시며 승리의 렬명이 밝아올 백두산대국의 무궁상당한 제일을 축복해주고계신다고 말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만리마를 란 기세

로 질풍노도처럼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세세년년 울려 퍼지는 천하게 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이 땅위에 하루빨리 일떠세우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준공레프를 맺으시었다.

순간 또다시 우렁찬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전갈하고 수많은 고무봉선들이 날아올라 위대한 로동당시대의 상징으로 훌륭히 솟아 빛나는 렬명거리의 하늘가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었다.

준공식에 이어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 일군들과 함께 전체 참가자들은 완공된 렬명거리를 돌아보았다.

주체조선의 강대성과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솟아오른 렬명거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대한 명도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당중앙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사회주의강국의 휘황한 미래를 향해 폭풍노도처럼 나아가는 일심단결, 혼연일체의 불가항력적위력, 지역자강의 지랑스런 창조물로 세세년년 빛을 뿌릴것이다.

본사정지보도반

